

우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개를 크게 세우는 평생
빅만평생통장

●예금 저축 실적의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우해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문의: 080-923-4000

국민은행

영예회장: 노태형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5월 22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이 생을 부처의 생으로 한다. 곧 가장 마지막 생으로 한다. 나는 오직 이 생에 있어서 미쁘히 일체를 건져야 한다." 스님들이 화현한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자 걸음처럼 사방을 두루 관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진실한 이치를 향하여 깨달아 중생을 일깨운 부처님. 사월초파일 5월24일은 부처님 오신날. 부처님의 성탄을 노래한 법구 시구를 감상한다.

(편집자주)

때는 사월 초파일, 맑고 화한 기운 고르고 알맞은데, 그는 재계하고 깨끗한 띠 두루 관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진실한 이치를 향하여 깨달아 중생을 일깨운 부처님. 사월초파일 5월24일은 부처님 오신날. 부처님의 성탄을 노래한 법구 시구를 감상한다.

부처님 오셨네

부처를 상기하면 마음 속에서 나는 견지할 수 있었습니다. 80년 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도 역시 이 위대한 분의 아름다운 덕행을 공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타고르 '불교에 있어서의 신앙관')

왕비의 꿈에 흰 코끼리가 오른쪽 옆구리에 들어왔으니 이 아들 더러운 때가 없으며 천상 인간이 머리속어 잘하리라. 일체를 모르는 것이 없고 나게 되면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요. (불본행경)

(불본행경)

환하게 태에서 나타나는 것. 마치 처음 오르는 해와 같아라.

보살이 이 세상에 나신 까닭은 세간의 온갖 고통 견지려 함이요, 오직 지 악마의 하늘 왕만 부들부들 떨면서 매우 근심하였네.

신령스런 상서로움이 이 나라에 보였으니 지금부터 갈수록 흥하고 성하리라. 이제 난 복복하고 훌륭한 아들, 반드시 등정각을 이루오리라. (마명 '부다치리타')

밖에서는 관재까지 반짝이며 그를 비춘다. 저 위쪽은 온통 그대 태양들이 가득가득 빛을 뿜으며 돌고 있으니, 그대 속에서는 이미 태양들을 뛰어넘는 일름 시작될 모양이네. (월계 '권휘속의 부처님')

부처님오신날 특집 28면 발행

- 특별기고-한국불교지회상 5
- 해외석학 인터넷 대담 6
- 연꽃세상 9
- 특집 I 다종교사회 종교화합 10 11
- 캄보디아·베트남 불교 12

- 특집 II 새싹불자를 키우자
- 그림으로 보는 부처님 탄생 21
- 좌담-어린이교회 체형담 23
- 새싹불자 설문조사 21 25
- 어린이 신행습는 불교용품 27



"사바세계에 연꽃을 피우자"

서울 한 복판에 부처님이 연꽃으로 나타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는 지난 14일 저녁, 시청앞 광장에서 시민과 불자 5백여명의 발원속에 연꽃등축식을 봉행했다. 피로연일, 붉은 꽃 봉우리가 활짝 피면서 불기 2540년 부처님오신 뜻을 기렸다.

금년 봉축 조형물은 예년과 달리 탑 대신 대형 연꽃(높이 7m 폭 18m)으로 제작되어 식막한 도심속에 은은하면서 화려한 연꽃의 멋을 시민들에게 전하게 됐다. 시청앞을 오가는 시민들은 어느덧 진흙속에서도 청정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연꽃의 가르침을 음미하는 듯 했다. (서울 시청앞=고영배 기자)



○지난 14일 화계사에 이교도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대적광전 비로자나 부처님이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을렸다.

"불교입문 부모 영향" 80%

본지 새싹불자 564명 설문 스님 인자하고 편안...포교프로 빈곤

불자어린이 10중 8명은 부모님 권유로 사찰 어린이법회에 나가고 있으며 스님을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법회 회원의 절반이 반야심경을 외우고 오계를 받았으며 처음 절에 갔을 때 낯설고 무서웠다는 어린이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새싹불자를 키우자'를 연중캠페인으로 벌이고 있는 본지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난 4월6일부터 12일까지 전국 6개교의 사찰 어린이법회 회원 5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싹불자 기초실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설문본서 24, 25면)

소년의 해'로 포교원 관계자는 "불자 어린이관련 자료가 빈약한 가운데 의식조사가 실시되어 중요한 자료가 될것이다"고 밝히 설문조사 내용이 청소년포교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중근 기자)

승복색갈 논의 조계종 의재위 실무회의

조계종 의재위원회(위원장

법타)는 지난 11일 1차 실무회의를 갖고 승복의 색깔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일타스님(정계대화상)을 위원회 중의(齋)로 추대하고 무비(범어사) 중원(관음사 주지)스님을 지도위원으로 선임하는등 위원회를 보강했다. 위원회는 또한 행자의 승복을 고동색으로 하고 사미(니)는 현행 회색승복에 깃과 소매 끝부분만 고동색으로 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회복지 시설중 교계운영 49%

보건복지부 현황분석 전국 6백53개소의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중 82.8%가 종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불교관련 복지시설은 전체 4.9%에 불과한 32개

화계사에 또 대낮방화

14일 대적광전 경찰 안일수사 '교계 비난'

삼삼삼 본원경사 연해 방화에 이어 지난 14일 정오 화계사에서도 이교도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방화사건이 발생해 교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화계사 방화는 강북구를 중심으로 한 잇따른 화재인데다 백주대낮에 일어나 집요하고도 치밀한 표적방화라는 점에서 교계는 더욱 경악하고 있다.

화계사 대적광전에서 발생한 화재는 비로자나불이 위치한 불단 뒷편을 전소시키고 2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22일과 5월 12일 두차례에 걸쳐 방화로 보이는 화재가 미수에 그친 데다 경찰이 경계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번째 일어난 방화다. 북부경찰서 김영일 형사과장은 "사

건으로 개인교는 13개, 천주교와는 2.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아동복지시설은 3백6개소 중 개신교 2백27개소, 천주교 22개소, 불교 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시설은 95년 현재 1백44개소로 스님 및 재가신도가 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곳은 15개소에 머물렀다.



스스로를 의지하라.
眞理의 가르침을 의지하라.

眞理의 나무아래 계달음을 얻은 순간부터 가르침의 긴 旅行은 시작되었다. 영겁의 歲月이 흐른 지금에도 인도라는 땅 곳곳에서 배어나오는 苦行의 발자국— 인도旅行은 大韓航空으로 편안히 다녀오십시오.

●룸바이(구 볼베이) 週 2회(木, 土) 예약 및 문의: (02)756-2000



●인도 부다카비에 부사님 발자국